

AAIR: 변화의 시기에 슬기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성균관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안강모

전대미문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와 생활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와 학술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께 우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는 공동으로 2009년에 영문 학술지인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llergy Asthma Immunol Res; AAIR, pISSN 2092-7355, eISSN 2092-7363)를 창간하여 통합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 학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AAIR는 대표적인 국내 발간 SCIE 저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명실공히 해당 학문 분야에서 국내외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학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1대 편집위원장 박춘식 교수님, 2대 편집위원장 박해심 교수님을 이어서 2021년 1월부터는 제가 AAIR 편집위원장을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AAIR가 우리 학회의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자산인지, 또 그동안 민양기 교수님, 편집위원장님들, 편집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AAIR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부족한 저로서는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AAIR는 2021년 현재 큰 변화의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편집위원장은 바뀌었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대면을 통한 국내외 학술교류는 위축되었으며, 학술 활동과 연구를 위한 재정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저를 비롯한 AAIR 간행위원회는 세계 모든 나라가 힘든 지금의 위기가 후발주자인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으로 슬기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문 분야에 따라 내과 박홍우 교수님, 이비인후과 김동영 교수님, 기초의학 신현우 교수님이 deputy editors를 맡아주셔서 앞으로 AAIR로 투고되는 original articles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였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을 associate editors와 reviewers로 초빙하여 엄격한 논문 심사를 함으로써 AAIR에 게재되는 논문들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외국의 opinion leaders와의 교류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제한적이겠지만 전임 편집위원장님들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시는 양 학회 선배님들, 동료들의 지원과 AAIR의 대외 홍보를 통해 인용이 많이 될 수 있는 review article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 학회 이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회원 여러분들의 식지 않는 열정이 있어서 저희의 도전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도전의 목표는 4.157인 2019 impact factor를 6 이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AAIR를 통해 국내 연구자, 연구회 및 워크그룹 등에서 만들어낸 훌륭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인정받게 하며, 이를 기회로 회원 여러분들이 외국의 유수한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양 학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와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AAIR 편집위원장 안강모 올림